

전남신보,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가속페달



올해 연 70회 이상 확대...현장밀착 지원·포용금융 실현
간담회·일일명예지점장 운영 등 소통 플랫폼 역할 강화

전남신보보증재단의 이동형 보증상당 창구 금융버스 ‘가드림’이 올해도 전남 전역을 달려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 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전남신보는 금융버스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자체적으로 버스를 마련하고 전남 부서인 가드림금융센터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도민행기단 최우수 시책’ 선정에 이어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2025년 지역경제 혁신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남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 해 가드림은 여수 거문도, 완도 노화도 등 도서지역과 담양 창평시장, 화순 고인돌 시장, 장흥 화진시장 등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보증상당, 정책자금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했다. 14개 시·군에서 총 58회를 운영, 508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함평 전지 전통시장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동형 보증상당 창구로서의 장점을 십분 살려 4일동안 재해현장에서 신속한 지원으로 시장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비금융 분야에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가드림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통창구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소상공인 간담회, 일일명예지점장을 운영해 재단과 전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례5일시장에서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참여해 소상공인과 직

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올해 금융버스 가드림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 70회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운영 횟수를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 제감도를 상승시키고,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운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증 지원이 취약했던 영암·곡성 지역의 경우 월 2회 정기 출장상담을 운영해 금융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소통창구 및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간담회를 10회 이상 실시하고, 일일명예지점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재단이나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전남도의 소상공인 정책홍보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에로 청취를 위한 금융버스 ‘가드림’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구례5일시장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상당 업무를 지원하며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터,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폭넓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금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도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버스 가드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멀어서, 바빠서, 몰라서 재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금융버스 가드림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살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버스 ‘가드림’의 자세한 일정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가드림금융센터 (061) 729-0674 또는 재단 홈페이지 (http://www.jn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2월 ‘으뜸 광주세관인’에 김일한 주무관

해제용 선박 수입신고 규정 개정...중기 물류비 절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목표세관 김일한 주무관을 ‘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일한 주무관은 통관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특히 해제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제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 기존에는 2000t 이하의 선박의 경우 해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해 해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박 보관 비용이 발생했으나 선박의 무게와 상관없이 수입통관 후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선박 보관 비용(1척당 1억4000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포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공헌 행사’를 진행하고,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정보기 지원금을 전달했다.

“광주 제조업, AI 대전환으로 미래차 거점 도약”

광주 AIDF 제조산업 대전환 전략포럼

시·정진옥의원 공동주최...자동차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사전 검증·협력체계 조성·금융 지원·기술 보급 정책 등 제시

광주지역 자동차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도입해 광주를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AIDF 제조산업 대전환 전략포럼’을 열고, 자동차 제조산업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와 정진옥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GAMA), 인공지능산학연협회 등이 주관했다.

포럼은 제조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공정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품설계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옥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만 고수해서는 살

아남을 수 없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광주가 명실상부한 AIDF 기반의 미래차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명 ‘기아’ 생산기술실장은 ‘기아 AIDF 방향성’ 주제발표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미래형 공장 모델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중심 공장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생산 공정과 방식을 직접 정의하는 지능화된 제조 체계”라며 “완성차 기업과 부품 협력사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품질과 생산성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승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장은 “데이터가 단절된 경직적 공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공정 제어를 통해 유연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설계·조달·생산·물류 전 과정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구민 국민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광주 제조산업은 자동화 중심의 기존 공장을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자율 제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공지능 중심 공장(AIDF)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사전 검증 체계 △지역 인공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규모별 금융 지원 △기술 보급 확대 정책 등이 제시됐다.

안봉균 광주미래차혁신협의체 의장은 “인공지능(AI)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 중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장벽이다”며 “기업들이 ‘초기 단계 매출 미발생 구간(데스밸리)’을 원만히 넘을 수 있는 과감한 금융 지원과 기술 보급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광주시 미래차산업과장은 “완성차 제조공장이 있는 광주에서 오늘 포럼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며 “광주시가 AIDF 전환을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도 검토하는 만큼, 지역 제조공장이 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광주은행, 전통시장 장보기

취약계층 온누리상품권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공헌 행사’를 진행하고,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정보기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생활 부담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표 가족돌봄아동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변정근 조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광주은행은 가족돌봄아동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장보기 지원금을 전달하고, 아동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돌봄아동 22개 가정에 총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가족돌봄아동들이 책임과 부담보다 희망과 용원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NH국민은행, ‘국민비서’ 서비스

111종 행정정보 알림 등 제공

농협상호금융은 모바일 플랫폼 ‘NH국민은행’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다. 현재 건강검진 일정,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안내 등 총 111종의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NH국민은행’과 연계해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카스, 국가대표 첫 메달 기념 이벤트

카스 0.0 기프트콘 증정 ‘팀 코리아’ 응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고, 메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카스 0.0 무료 기프트콘 증정 이벤트’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카스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인 22일까지 우리 선수단이 메달을 따내는 날마다 메달 1개당 1만 명에게 난알코올 음료 ‘카스 0.0’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금·은·동상관없이 모든 메달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착순 1000명에게 ‘카스 0.0’ 무료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상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벤트는 카스 공식 홈페이지 내 ‘카스 0.0’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당첨 여부는 응모 다음날 오전 9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주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콘이 지급된다.

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 선수(은메달)의 대한민국 첫 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프트콘 1만 개를 지급했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순간의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한국 선수단 경기가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이어지는 만큼, 난알코올 음료 ‘카스 0.0’과 함께 부담 없는 음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스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선수를 ‘카스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는 ‘코리아하우스’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에서는 ‘카스 올림픽 스타이션’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올림픽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